

보성군, 관광·정주·레저 완성... 주거복합 타운 박차

KTX 이음 개통 연계 생활권 6045억 규모 민간투자 확정 고용·인구 유입·경제 활성화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 구축"

'KTX 이음 시대'를 앞두고 전라남도 보성군이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회천면 전일리 일원 49만5000평(163만6644㎡) 부지에 조성되는 '보성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 타운'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전환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민간 투자사 프라이빗보성(주)이 오는 2030년까지 총 6045억원을 투입해 정주, 휴양, 관광, 레저를 아우르는 올인원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요 시설로는 단독주택 190동(2층), 휴양형 콘도미니엄 35동(8층, 1008객

실), 실내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27홀 골프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보성군과 전라남도, 프라이빗보성(주) 3자는 지난 1월10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KTX 이음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과 부산·광주·순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보성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양레저 도시로서 보성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울포해양복합센터,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인 울포항, 울포프롬나드 사업과 연계돼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은 직접 고용 인원 150명 이상, 장기체류형 관광객 유치, 지역 서비스 산업 확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까지



보성군이 회천면 전일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보성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 조감도. 보성군 제공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 세대 귀촌 유입, 해양 레저 수요 확대, 제2주택 수요 증가 등 전국적인 정주 트렌드와 맞물려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TX 이음 개통과 함께 보성의 가치와 미래는 완전히 달라

질 것"이라며 "해양과 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일리 일원에 주거, 휴양,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명품 주거복합타운을 조성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찾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명소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성=양중수 기자

'순천만 어린이 탐조학교' 모집 순천시 거주 초등학생 4~6학년생

전라남도 순천시는 미래 생태세대의 감수성과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순천만 어린이 탐조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탐조전문가 양성과정과 이어,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랍사르 습지도시로서의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생이며 서류심사 후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결과는 오는 19일에 개별 통지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순천시청 또는 청암대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2020012@ca.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암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과(061-740-7188)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11월29일까지 매월 정해진 요일, 총 12주 4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순천시 어울림도서관과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이론 강의와 야외 탐조 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의 분류와 생태 △ 울음소리와 이동 경로 △우포늪 생태탐방 △멸종위기종 이해 △나만의 탐조 노트 만들기 등 아이들이 새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생태 치유형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며 조류·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과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 운영 미취업 청년 171명 모집

전라남도 여수시는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이하 청년인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171명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여수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18~45세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나 외곽 지역 근무지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 참여자는 재참여가 가능하다. 2024년 청년인턴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 수상자도 이번 사업에 한해 재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문서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청 경제일자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7일 공개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30일 이후 시 누리집에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인턴은 오는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약 한 달간 시청,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관광·산업 기관 등에 배치돼 행정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일자리과(061-659-362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조례5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0세대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조례5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모집은 조례주공5차 내 501~504동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형별 26.37㎡ 150세대, 31.32㎡ 30세대로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년자(만 19세 이상)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양도·전대 등 입주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순천시에는 1205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2개단지(서면 선평배들마을주공, 조례주공5차)가 운영 중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권고 여수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전라남도 여수시는 최근 홍콩, 대만 등 인접한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접종을 마쳤더라도 90일이 지났다면 1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은 보건소와 중부보건지소,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백신 보유 여부와 접종 가능일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월·화·수·금요일, 중부보건지소는 월·화·목요일 접종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27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2일 구례군 자원봉사단체 산애삶애 회원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공원에서 동상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산애삶애 봉사단체, 현충공원 환경정비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난 2일 자원봉사단체 산애삶애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공원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5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산애삶애의 '역사를 닦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의 첫 활동으로 10여명의 자

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현충공원 내 동상을 청소하고, 대리석 바닥에 쌓인 먼지를 고압세척기로 제거하며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구례읍 봉성산 자락에 자리한 현충공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현충탑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이름이 새겨진 참전유공자탑,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이 위치해 있다.

박만우 산애삶애 회장은 "이번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례군의 현충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해 현충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충공원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산애삶애 자원봉사단체에 감사드리다"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6월이 되도록 호국보훈 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순천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내일 순천만국가정원서

전라남도 순천시는 6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현충정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념식에는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

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울리며 시작된다. 이어 헌화와 분향, 추념사 순으로 진행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추념식은 영웅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반임을 되새기고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충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국가추념일이다. 시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그 뜻을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예우와 존경의 마음으로 추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추념식 이후에도 현충정원을 찾는 시민과 보훈가족이 자유롭게 참배하고 헌화할 수 있도록 국화를 비치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